

2007 기후변화 협상동향과 향후 전망

Volume. 1, No. 17

2007. 12. 24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Contents

1. UNFCCC 기후변화 협상동향 / 4
2. 미국주도 17개국 기후변화 회담(MEM) / 7
3.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APP) 추진 현황 / 11
4. 기타 국제협력체 협상 현황 / 13
5. 시사점 / 17

2007 기후변화 협상동향과 향후 전망

김 수 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요 약

- 2007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3)와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CMP 3)에서는 Post-2012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마련하였음.
- Post-2012 선진국 추가 감축에 대한 향후 논의를 위하여 추가적인 특별작업반 회의를 통해 2009년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음.
 - 낮은 수준(490 ppm)의 온실가스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 선진국(부속서 I 국가)들의 감축량이 1990년 대비 25~40%에 달해야 한다는 IPCC 보고서 내용을 감축잠재량의 준거로 활용하였음.
 - 향후 4차례의 추가적인 AWG회의와 2차례의 In-session Workshop 개최를 통해 감축수단, 감축 목표, 감축수단의 효율성제고방안을 분석하기로 함.
- 또한 Post-2012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 향후 논의를 위한 로드맵(Bali Action Plan)을 제시하였음. 이에 의하면 향후 2년 동안 '기후변화협약하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Long Term Cooperative Action)'을 통해 4차례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2009년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7년 9월 27~28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이 제안한 17개국 기후변화 회담이 열림.
 -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전지구적인 장기목표 설정, 자발적인 국내 중기 감축목표 설정, 수송 및 산림 등 부문별접근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 선진국내에서도 미국과 EU의 입장차이가 뚜렷하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함.

- 2007년 한해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은 제4차 정책이행위원회 회의와 제2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프로젝트 중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회원국의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함. 10월 각료회의에서는 캐나다가 새로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이 7개국으로 확대되었음.
- G8 정상회담에서는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하여, IPCC 보고서의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G8은 EU, 캐나다, 일본이 제시한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는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기로 결정하였음.
- 2007년 9월 열린 APEC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향후 APEC 역내의 에너지 집약도 (Energy Intensity)를 2005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감축시키는 목표를 설정하고 ‘아시아-태평양 에너지기술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냄.
- 2007년 한해 진행된 기후변화 협상은 Post-2012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논의의 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 향후 Post-2012 기후변화체제에 대한 논의의 틀이 마련되었으므로 협상일정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상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임.

1. UNFCCC 기후변화 협상 동향

-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3)와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 총회(CMP 3)에서는 Post-2012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마련하였음.
 - 발리 로드맵에 의하면 두가지 형태의 특별 작업반(Ad-hoc Working Group, 이하 AWG)을 구성하여 2009년 말까지 Post-2012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음. 하나는 교토의정서하 Post-2012 선진국 추가감축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협약하 Post-2012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것임.

가. 교토의정서하 Post-2012 선진국 추가감축에 대한 논의

- 지난 200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하 Post-2012 선진국(부속서 I 국가)의 추가감축에 대한 논의를 위해 특별작업반을 통해 지금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가진바 있음.
 - 그러나 지난 네차례의 AWG회의를 통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각국의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음.
 - 선진국들은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선진국들만의 의무감축노력만으로는 전지구적인 온난화에 대응하기 힘들므로 개도국들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산업화 이후 지구온난화는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이 크므로 2012년 이후에도 선진국들의 의무부담 감축을 지속해나가야 하며, 이를 개발도상국들의 의무부담으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임.
- 2007년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Post-2012 선진국 추가 감축에 대한 향후 논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음.
 - 낮은 수준(490 ppm)의 온실가스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 선진국(부속서 I 국가)들의

감축량이 1990년 대비 25~40%에 달해야 한다는 IPCC 보고서 내용을 감축잠재량의 준거로 활용하였음.

- 향후 4차례의 추가적인 AWG회의와 2차례의 In-session Workshop 개최를 통해 감축수단, 감축 목표, 감축수단의 효율성제고방안을 분석하기로 함.

- 제5차 AWG회의와 In-session Workshop은 2008년 3월이나 4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온실가스 감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한 수단의 분석(Analysis of possible means to achieve mitigation objectives)’¹⁾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임. 2008년 2월 15일까지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 제6차 AWG회의와 In-session Workshop은 2008년 8월이나 9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과 범위의 분석(Analysis of mitigation potentials and ranges of emission reduction objectives)’²⁾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임. 2008년 9월 5일까지 부속서 I 국가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추가적인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청.

- 제7차 및 제8차 AWG회의는 2009년에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제6차 AWG회의를 통하여 결정될 예정임. 그리고 논의되는 주제는 ‘부속서 I 국가의 추가의무부담에 대한 고려(Consideration of further commitments by Annex I Parties)’³⁾로서 사실상 선진국의 추가 의무부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됨. 2009년 2월 15일까지 교토의정서 당사국들은 교토의정서 3조 9항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부속서 I 국가들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규모 및 배분방법에 대한 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 2009년까지 Post-2012 선진국 추가 감축과 관련된 선진국 전체 감축규모 및 국가별 수량적 감축공약 및 공약기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음.

1) FCCC/KP/AWG/2006/4. paragraph 17 (b).

2) FCCC/KP/AWG/2006/4. paragraph 17 (a).

3) FCCC/KP/AWG/2006/4. paragraph 17 (c).

나. 기후변화협약하 Post-2012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체제에 대한 논의

- 지난 200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Post-2012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등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장기협력 대화 채널”(Dialogue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by enhancing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이라는 네차례의 회의를 가진바 있음.
 -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시장기회의 확대, 적응에 대응책, 기술의 잠재력 확인 등에 대한 네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선진국 개도국간 의견교환을 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음.
 -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스턴보고서(Stern Review on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 세 번째 보고서에서는 IPCC 제4차 작업반 I, II, III보고서(IPCC AR4 reports of WG I, II, III), 그리고 세 번째 워크숍에서는 IPCC 제4차 종합보고서(IPCC AR4 Synthesis report)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음.
-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Post-2012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체제 향후 논의를 위한 로드맵(Bali Action Plan)을 제시하였음. 이에 의하면 향후 2년 동안 ‘기후변화협약하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Long Term Cooperative Action)’을 통해 4차례의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2009년까지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전지구적인 심도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IPCC 제4차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의 목적은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과 그에 상응하는 능력에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지구적인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한 장기협력 행동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임.

- 제1차 회의는 2008년 3월~4월경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제2차 회의는 제28차 부속기구회의와 연계하여 2008년 6월에 개최되며, 2008년 8월~9월경 제3차 회의가 개최되며, 2008년 12월에는 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14)와 연계하여 2008년 12월에 개최됨.
- 논의되는 주제는 ① 기후변화의 감축에 대한 진전된 국가적/국제적인 행동(Enhanced national/international action on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② 적응에 대한 진전된 행동(Enhanced action on adaptation), ③ 감축과 적응에 대한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이전에 대한 진전된 행동(Enhanced action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to support action on mitigation and adaptation) ④ 감축과 적응 그리고 기술협력에 대한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과 투자 촉진을 위한 진전된 행동(Enhanced action on the provision of financial resources and investment to support action on mitigation and adaptation and technology cooperation) 등 네 가지임.
- 특히 감축과 관련해서는 모든 선진국의 경우에는 상호간 노력의 상응성이 보장된 수량적 감축 목표를 포함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국내 감축공약 혹은 행동을 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기술 및 재정지원 그리고 능력향상을 통해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국내 감축행동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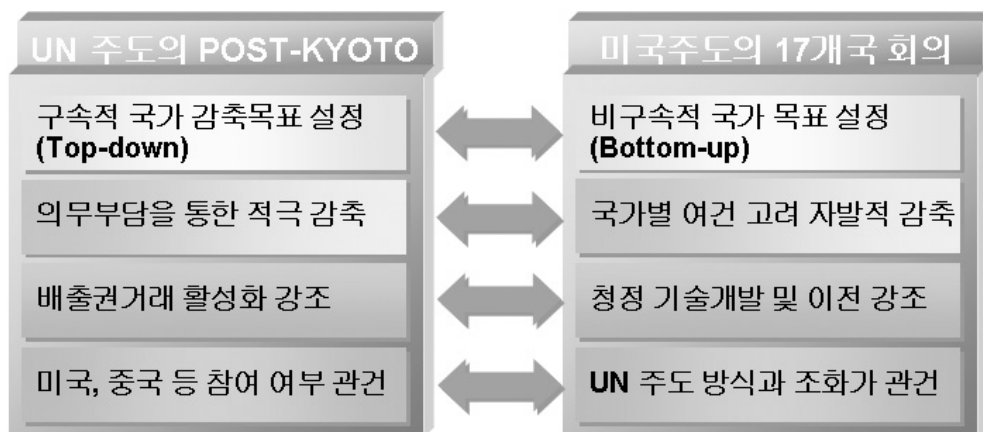
2. 미국 주도 17개국 기후변화 회담(MEM)

- 이에 2007년 9월 27~28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17개국 기후변화 협상 대표들이 회담을 가짐.
 - * G8(미국,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일본), 호주, 포르투갈(EU 대표),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공, 한국, 멕시코
 - * 미국 주도 17개국 기후변화회담은 MEM(Major Economies Meeting)이라고 향후에는 명명됨.
- G8, 호주, 포르투갈을 비롯한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다배출 개발도상국인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한국, 멕시코가 포함됨.

-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이후로 UNFCCC 주도의 기후변화협상에서는 배제되어 왔으며,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음.
 - 2007년에 발표된 IPCC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전지구적인 재앙을 초래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조기 감축이 요구되는바 미국도 이제는 더이상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입장임.
 - 이에 미국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와 같이 기후변화는 선진국들만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의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다배출 개발도상국들의 참여도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17개국간 기후변화 소그룹 회담' 을 제안하게 됨.
- 미국이 주도하는 17개국 기후변화 회담은 UN프로세스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UN 주도의 post 교토체제가 구속적 국가 감축목표 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미국 주도의 17개국 회의에서는 비구속적 국가목표 설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림 1] 유엔과 미국 주도 프로세스의 주요 쟁점 비교



- 미국이 의도하는 17개국 회담의 주요 방향은 첫째, 2008년까지 현 교토의정서 체제이후의 전지구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Post-2012 기후변화 대응체제(framework) 수립하는 것이며, 둘

째, 효과적인 체제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non-binding)체제로서 전지구적인 장기 목표 설정, 자발적인 국내 중기 감축목표 설정하는 것이며, 셋째, 부문별 접근(sectoral approach)에 의한 상향식(bottom-up) 감축방식으로 민관협력과 선·개도국간 기술개발 및 이전 노력 촉진하는 것임.

- 전지구적인 장기목표 설정과 관련해서 일본, 캐나다, EU 등은 2050년까지 50%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각 국가의 입장이 미묘한 차이를 보임.

- 일본은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50% 감축하는 장기목표를 제시하면서, 자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규제방안, 혁신기술개발,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경주할 예정임을 설명함.

- 캐나다는 2050년까지 자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6년 기준으로 60-70% 감축하는 장기목표를 발표함. 캐나다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주요 배출국들의 동참, 장기계획의 설정,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유지, 신축성 유지,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시장 메카니즘의 확대 및 촉진, 적응 노력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함

- EU는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1990년 대비 50% 감축목표는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의 선도적 책임 및 수량적 감축목표의 이행, 개도국의 에너지 집약도 감축(단기) 및 수량적 감축목표의 설정(중장기)을 요구함. 그리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한 시장 메카니즘의 활용 극대화를 주장함.

- 특히 미국과 EU의 입장이 대립하였는데 미국은 장기적인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과 이의 이행을 주장한 반면 EU는 선진국의 선도적 책임 및 수량적 감축목표의 이행을 주장함.

- 전지구적인 장기목표설정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능력향상 등 지원방안에 대한 선진국의 역할을 강조함.

- 중국은 현재까지 선진국에서 개발된 모든 기술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기준연도에 관계없이 2050년까지 50%의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따라서 수용 가능한 목표의 재수립과 이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함. 아울러 개도국이 선진기술 채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능력형성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함.
- 남아공은 개도국을 제외한 자리에서 일부 국가들만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광범위한 국가들의 논의 참여와 agenda의 확대를 제안함.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고, 청정기술 fund 등 UNFCCC하에서 추진되는 개도국 지원에 대해 선진국들이 보다 강력한 행동과 신뢰를 보여줄 것을 촉구함.
- 인도는 장기목표는 UN의 틀 안에서 협의되어야 하며, 선진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가 되어야 함을 주장함.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적 접근 필요성을 주장함.
- 그 외에도 청정석탄, 수송, 산림 그리고 에너지효율에 대한 부문별 논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이전, 자원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하였음. 주로 의견대립보다는 구체적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실효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그리고 발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13) 이후 부문별 작업반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함.
- 17개국 회담을 통해서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쳤으며, 향후 회의 일정은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하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추이를 보가며 신축적으로 조정할 예정임.

3.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APP) 추진 현황

-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APP; Asia 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은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등 6개국간 청정에너지개발 및 보급, 확산을 통한 역내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호주 시드니에서 6개국 각료회의를 계기로 출범.
- 지금까지 2차례의 각료회의와 5차례의 정책이행위원회(PIC; Policy Implementation Committee) 회의를 통하여 8개 TF(재생에너지, 가전 및 건물기기, 발전 및 송전, 철강, 시멘트, 청정화석연료, 석탄채광, 알루미늄)의 구성을 확정하였음.
 -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석탄채광, 알루미늄 TF를 제외한 6개의 TF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가전 및 건물기기 TF의 의장을 맡고 있음.
- 지금까지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 PIC 회의를 통해 TF 가이드라인, Action Plan 가이드라인, Flagship 가이드라인을 확정 짓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각 TF별로 수행하고 있음.
 - 지금까지 각 TF에서 108개의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중 4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이 주목하고 있는 Flagship 프로젝트는 20개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중 우리나라는 10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음.
 -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주로 저탄소에너지기술,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 청정에너지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본 프로젝트 수행은 기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다 보니 구체적인 온실가스 저감량을 산출하기는 힘들.

〈표 1〉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 프로젝트 진행현황과 우리나라 참여현황

2007년 12월 현재

구 분	전체 진행 프로젝트*	한국참여 프로젝트	Flagship 프로젝트	한국참여 Flagship 프로젝트
알루미늄 TF	7	0 ¹⁾	2	0 ¹⁾
가전·건물 TF ²⁾	11	8	2	1 ³⁾
시멘트 TF	10	9	3	2
청정화석에너지 TF	16	9 ⁴⁾	2	0
석탄채광 TF	18	0 ¹⁾	3	0 ¹⁾
발전송전 TF	13	5	1	1
신재생·분산전원 TF ²⁾	27	5	2	1 ⁵⁾
철강 TF	6	6	5	5
합계	108	42	20	10

자료: www.asiapacificpartnership.org

주: 1) 우리나라 전략상 꼭 필요하지 않아 가입하지 않은 TF임

2) 우리나라가 TF 의장국임.

3) 원래 14개 프로젝트였으나 프로젝트1, 5, 7을 프로젝트 5로 편입함.

4) 향후 참석 예정인 것까지 포함.

5) 국내에서 예산지원하는 프로젝트임.

- 한편 2007년 7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4차 PIC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아태 에너지 기술 협력센터(AP-ETCC, Asia Pacific Energy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가 최종 승인됨.
 - 주요 기능으로는 에너지 효율 관련 우수 사례 및 정보의 교환 및 전파, 에너지효율 관련 train-the-trainer workshop 개최, 자발적 진단(voluntary auditing) 등이 있음.
 -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에너지효율 개선 기술의 정보·전문성을 공유하며, 선진기술 제공 및 교환, 관련 전문가 기술 교육하고, 민간부문의 사업기회 확대 및 파트너십 목적달성에 공헌할 수 있음.
- 2007년 11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각료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 활동 성과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음.
 - 특히 캐나다가 제4차 PIC회의에서 참가의사를 밝힌 이후, 이번 각료회의에서 최종 승인됨으로서

이제 아태파트너십은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 등 기존 회원국에다 캐나다를 추가하여 7개국으로 확대되었음.

- 또한 제4차 PIC회의에서 승인된 아태 에너지 기술협력센터를 제2차 각료선언문에 추가함으로써 한국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었음.

-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비추어 볼 때 기술협력과 기술개발에 대한 국제협력체로서 자리매김하여 왔으며, 이는 향후 기후변화협상과정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 및 능력향상, 재정지원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

4. 기타 국제협력체 협상 현황

가. G8 정상회담

- G8 정상회담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선진 8개국들(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의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선진국들의 입장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 2007년 6월 독일의 Heiligendamn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의제로 채택되어 온실가스 저감, 기술, 시장 메커니즘,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적응,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논의됨.
-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해서는 IPCC 보고서의 과학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G8은 EU, 캐나다, 일본이 제시한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는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기로 결정하였음.
 - G8 정상들은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자는 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반대로 진지하게 고려하는 선에서 결정문에 포함시켰음.

-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는 중국, 인도, 한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됨.
- G8은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현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향후 기후 변화 대응은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10년 동안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 국가적인, 지역적인,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체계(Framework)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체계는 기후변화 대응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경제성장,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통합된 접근법이어야 함.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UNFCCC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과 원칙에 기반하여 각 경제단계별로 차별화된 기후변화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음.
 - 선진국(developed countries)들은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 특정 국가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수행하도록 함.
 - 선진국의 노력만으로는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온실가스 다배출 개발도상 국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따라서 중국, 인도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국가들(Emerging Economies)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온실가스 집약도를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 Emerging Economies는 지속가능한 정책 및 조치, CDM의 강화, 부문별 대응마련 등을 실천할 수 있음.
 - G8은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인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과 함께 2007년 5월 4일 베를린에서 기후변화 대응 G8+5 회담을 가짐. 향후에도 G8은 이러한 국가들과의 회담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들의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담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G8은 미국이 2007년말 17개국 기후변화회담(MEM)을 제안한데 환영하고 온실가스 다배출국가

들이 자국의 환경 및 UNFCCC의 작업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국가적인, 지역적인, 국제적인, 정책, 목표, 계획을 수립하며, 기후 친화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음.

- G8 선진국들은 UN 기후변화 대응 과정이 기후변화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Post-2012 협상을 위해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와 교토 의정서당사국총회(MCP)에 능동적으로,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협상은 UNFCCC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음.
- 또한 협상시한과 관련해서는 2009년까지 UNFCCC로 하여금 전세계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2008년 말까지 새로운 전세계 체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천명함. 이러한 결정은 2007년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의 발리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함.

나. APEC 정상회담

- 2007년 9월 9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의 APEC이라는 지역경제협력체의 기후변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APEC이 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APEC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국제적인 행동지침으로는 7가지를 들 수 있음
 - 포괄성: 향후 공통의 전지구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APEC에서 국제행동은 균등하며, 환경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어야 함.
 - 국내환경 및 능력의 차별성에 대한 존중: 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근거하여 각국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조건의 차별성을 인정함.
 - 유연성: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 다양한 지역범위에 걸친 실질적인 행동과 국제적인 협력을 지원함. 또한 국내 조치는 기후변화 완화에 측정 가능하여야 하며, 시장메커니즘의 효율적인 운용의 중요성을 인식함.

- 저탄소 에너지원과 기술에 대한 중요성: 청정 화석연료 사용을 위한 저탄소 기술에 역내 연구 및 개발, 확산, 이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감.
 - 산림 및 토지이용의 중요성: Post-2012 국제기후변화협상에서 산림 및 토지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무역 및 투자 장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이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지 않아야 함.
 - 효율적인 적응 전략 지원: 재정, 능력향상,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개발 전략은 적응에 최우선을 두어야 함.
- 또한 효과적인 Post-2012 협상에 대한 초석으로 전세계적인 장기 목표수립에 공통의 이해를 마련하는데 합의하고 일본과 캐나다의 장기 목표수립에 대한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였음.
 - 일본과 캐나다는 2050년까지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반으로 줄일 것을 G8 정상회담에서 제안한바 있음.
 - APEC 정상들은 UNFCCC하에서 논의되는 Post-2012 협상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UN사무총장이 제한 기후변화에 대한 고위급 회담에 대한 지지를 보냄.
 -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협상 프로세스를 UN으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APEC의 지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 주도의 17개국 회담은 UN프로세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APEC은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보다는 역내의 공통이해를 바탕으로 회원국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임.
 - APEC에서는 향후 기후변화 행동의제(Action Agenda)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제는 역내 목표달성을 위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비구속적인 선언으로서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APEC 역내의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를 2005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감축시키는 목표를 설정.

- APEC 역내의 산림을 적어도 2천만 Ha 까지 조성하여 140억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140억 톤의 온실가스 2004년 기준으로 한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1%에 해당.
- 역내의 저탄소 에너지 연구개발 협력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에너지기술 네트워크' (APNet; Asia-Pacific Network for Energy Technology)를 설치
- 역내의 능력조성(Capacity Bulding)과 산림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조성 네트워크' (Asia-Pacific Network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Rehabilitation) 설치
- 환경재와 서비스 무역, 저탄소 에너지 사용, 에너지안보,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기준 마련
- APEC은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청정개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경제성장과 기술개발이라는 두가지 동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임. 이를 위해서 APEC회원국들은 국제 공조를 확대해 나가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임.

5.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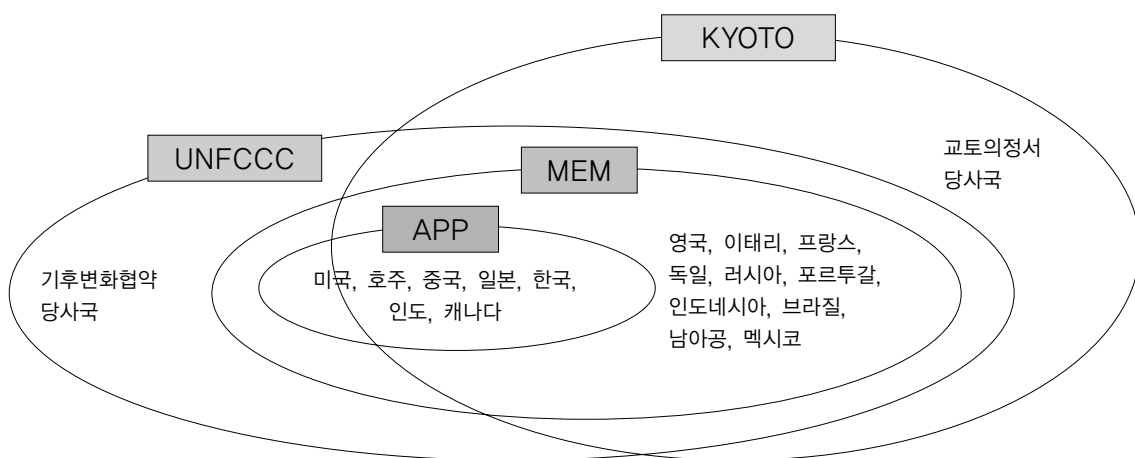
가. 주요 기후변화협상 체제의 비교

-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서는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은 특별한 감축목표가 없으며, 미국주도 17개국 회의에서는 장기 감축목표와 단기/중기 감축목표 설정을 논의하며, 교토의정서하 Post-2012 선진국 추가감축을 위한 AWG회의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1990년 대비 절대적 감축 목표를 논의하며, 기후변화협약하 Post-2012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체제 논의를 위한 AWG회에서는 선진국은 수량적 감축목표를 개도국은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논의함.
- 감축방식과 관련해서는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은 부문별 접근법(Sectoral Approach)을 사용하며, 미국주도 17개국 회의는 부문별 접근법과 하향식 목표설정 방식을 사용하며, 교토의정서하 Post-

2012 선진국 추가감축을 위한 AWG회의는 하향식 감축방식을 논의하며, 기후변화협약하 Post-2012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체제 논의를 위한 AWG회의에서는 향후 감축방식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협상시한을 보면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이 없는 반면, 미국주도 17개국 회의는 2008년 말까지, UN 프로세스인 교토의정서하 Post-2012 선진국 추가감축을 위한 AWG회의와 기후변화협약하 Post-2012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체제 논의를 위한 AWG회의는 2009년 말을 정해두고 있음.
- 참여 국가를 보면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이 미국을 비롯한 7개국, 미국주도 17개국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다배출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17개국, UN프로세스인 교토의정서하 Post-2012 선진국 추가감축을 위한 AWG회의는 교토의정서 비준 당사국(미국제외), 기후변화협약하 Post-2012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체제 논의를 위한 AWG회의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기후변화협약 비준 당사국들이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은 교토의정서하 Post-2012 선진국 추가감축을 위한 AWG회의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3개의 협상을 주도.
 - 한국은 4개의 모든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그림 2] 주요 기후변화협상 참가국 현황



〈표 2〉 주요 기후변화협상체제 비교

구분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십	미국주도 17개국 회의 (MEM)	교토의정서하 Post-2012 선진국 추가감축을 위한 AWG	기후변화협약하 Post-2012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위한 AWG
감축목표	특정한 감축목표 없음	장기 감축목표 및 단기/중기 감축목표 설정 논의	1990년 대비 절대적 감축 목표(선진국)	수량적 감축목표(선진국) 자발적 감축목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개도국)
감축방식	프로젝트별 Sectoral Approach (발전, 철강, 시멘트, 가전·건물, 재생에너지, 석탄·채광, 알루미늄, 청정화석연료)	Sector Approach와 Top down 장기 목표 설정 방식/국내적 감축목표 과정 병행	주로 Top down 감축방식	미정
Time Frame	없음	2008년말	2009년	2009
참여국가	미국, 호주,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캐나다	17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 중국, 남아공, 포르투갈, 브라질, 일본, 인도네시아, 멕시코, 독일, 호주 등)	교토의정서 비준 당사국 (미국 제외)	기후변화협약 비준 당사국 (미국 포함)
우리나라 감축의무	프로젝트에 의한 감축 (감축의무 없음)	감축목표 합의시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내 감축목표설정 필요	교토의정서에 의거, 선진국의 경우 2013년부터 구속적 감축목표 부담 (Annex B 개정)	향후 4차례의 '기후변화협약하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 회의를 통해 결정

- 우리나라의 감축의무는 협상그룹별로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어 아직은 유동적임.
 -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은 프로젝트별로 일부 감축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구속적이지 않으며, 파트너십 차원에서의 감축의무는 없음.
 - 미국주도 17개국 회의는 감축목표 합의시 자발적 감축목표이행을 위한 국내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내 감축목표설정이 필요함.
 - 교토의정서하 Post-2012 선진국 추가감축을 위한 AWG회의는 선진국들의 구속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감축의무는 없을 수도 있음.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부속서B 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감축의무 대상국이 될 수 있음.
 - 기후변화협약하 Post-2012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체제 논의를 위한 AWG회의는 아직 회의가 시작되지 않아 협상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임. 그러나 Bali Action Plan에 의하면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수량적 감축목표를 포함한 측정, 보고, 검증 가능한 감축공약이나 행동'을 고려해야 하며, 개도도상국의 경우는 '국가별 차별성을 고려하여 자발적 감축목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어떠한 형태의 의무부담에 속할지는 향후 협상추이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

나. 향후 주요 기후변화협상 일정과 향후 협상 전망

- '기후변화협약하 Post-2012 선진국-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체제 논의를 위한 AWG회의' (장기협력 AWG회의)가 2008년 내에 주요 의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전략을 제1차 회의 이전에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토의정서하 Post-2012 선진국 추가감축을 위한 제5차 AWG회의' (제5차 선진국 추가감축 AWG회의)도 3~4월 제1차 장기협력 AWG회의와 연계되어 개최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기초가 3~4월 이전에 마련되어야 함.
- 제2차 미국주도 17개국회의(MEM)가 1월과 2월 달에 열린 예정이므로 제1차 장기협력 AWG회의와 제5차 선진국 추가감축 AWG회의에 이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표 3〉 2008년도 주요 기후변화 협상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1차 장기협력 AWG												
제2차 장기협력 AWG												
제3차 장기협력 AWG												
제4차 장기협력 AWG												
제5차 선진국 추가감축 AWG												
제6차 선진국 추가감축 AWG												
제5차 PIC회의 (APP)												
제3차 각료회의 (APP)												
제2차 17개국 회의 (MEM)												
제3차 17개국 회의 (MEM)												
G8 정상회담												
APEC 정상회담												

- 제3차 장기협력 AWG회의와 제6차 선진국 추가감축 AWG회의 바로 전에 2008년 G8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이 회의에서 선진국들의 Post-2012에 대한 협상방향이 설정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지금까지 G8 정상회담은 UNFCCC 기후변화 협상 프로세스에 대해 힘을 모아 주었으며, 이러한 기존 입장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APEC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의 성격상,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공통된 입장을 표명하는 선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정상선언문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역내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다. 향후 주요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에 대한 기본 입장

- Post 2012에 대한 주요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은 UNFCCC주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미국 주도 17개국 회담은 비록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IPCC에서 권고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다른 선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미국 주도 17개국 회의에서는 UNFCCC체제 내에서 그동안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므로 향후 협상 추이를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임.
 - 17개국 회의 결과는 향후 진행되는 장기협력 AWG회의와 선진국 추가감축 AWG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특히 17개국 회의는 수송, 산림, 에너지 효율 등 부문별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UNFCCC의 SBSTA, SBI회의에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아태기후변화파트너십은 미국이 지금까지 주도해 왔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후에도 구체적인 기술 및 시장에 대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기술, 청정에너지기술을 확산하는 모델로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서 기술이전, 재정지원, 능력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지금까지 UNFCCC차원에서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지원, 재정지원 등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G8 정상회담은 선진 8개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임. 2007년의 회담에서도 발리 당사국 총회에서 'Bali Action Plan'을 이끌어내는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을 볼 때 향후에도 이러한 역할을 지속할 것임.

- APEC 정상회담은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서 의무적인 강제조항은 없지만 역내 국가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일조하고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는 APEC 지역 내 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2007 기후변화 협상동향과 향후 전망



KEEI